

# ‘안정 속 쇄신’ 30대 CEO 발탁... 경영지원 대표에 허민회

## CJ그룹 2025 정기임원인사

CJ그룹이 18일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로 허민회 CJ CGV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2025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 CJ CGV의 신임 대표이사에는 정종민 CJ CGV 터키법인장이,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사업총괄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그룹의 핵심 가치인 ‘온리 원(ONLY ONE)’ 정신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CJ 측은 설명했다. 그룹 사업 전반의 속도감 있는 밸류-업(가치상승) 실행을 위해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이 유임됐고, 최고 인재를 중심으로 산하 경영진을 개편했다. 그룹 최초로 30대 CEO를 과감히 발탁하는 등 젊은 인재 선발 기조도 이어갔다.

CJ는 지주사 CJ주식회사의 기존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신임 허민회 대표가 경영지원대표를 맡아 그룹 전반의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경영대표와 경영지원대표를 겸직했던 김흥기 대표는 경영대표직을 맡는다. 지난해 말까지 CJ는 김흥기·강호성 대표 체제였으나 강 대표가 사임하면서 그 동안 김 대표 혼자 회사를 이끌어왔다.

허민회 대표는 1986년 제일제당 신입공채로 입사해 CJ푸드빌 대표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총괄대표,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CJ오쇼핑 대표이



허민회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



정종민  
CJ CGV 대표



방준식  
CJ 4D플렉스 대표

**위기 속 ‘온리 원’ 정신 재건 초점 “허민회, 중장기전략 실행 책임자” 윤상현 대표, CJ ENM 대표이사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 이선영 CJ CGV 신임대표에 정종민 내정**

사, CJ ENM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는 CJ CGV 대표이사직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극장 사업 구조 혁신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CJ 관계자는 “허민회 대표는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륜을 바탕으로 대외업무 총괄과 그룹 중기전략 실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CJ는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과 커머스부문 대표를 겸임했던 윤상현 대표를 CJ ENM 대표이사와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를 겸하도록 했다. 윤 대표는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사업총괄이 내부 승진한다. 이선영 신임 대표는 2000년 CJ오쇼핑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CJ ENM 커머스부문 브랜드사업부장, MD본부장 등을 거쳤다.

‘미디어 커머스 큐레이션 플랫폼’ 진화를 추진하고 ‘원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신규 상품 카테고리 및 브랜드를 발굴해 회사 경쟁력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CJ CGV 신임 대표에는 정종민 CJ CGV 터키법인장이 내정됐다. 정 신임 대표는 2012년 CJ CGV에 합류해 마케팅담당, 국내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 터키법인을 총괄하며 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업 건전성을 회복시켰다.

그룹 최초로 90년대생 CEO도 발탁했다. CJ CGV 자회사 CJ 4D플렉스 신임 대표에 1990년생 방준식 경영리더를 내정한 것. CJ는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극장 사업의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주도하기 위해 젊은 인재의 역할을 과감히 확대했다.

방준식 신임 대표는 2018년 CJ 4D플렉스에 합류해 콘텐츠사업팀장, 콘텐츠사업혁신TF장 등을 거쳤다. 올해 2월부터 콘텐츠본부장을 맡아 BTS ‘옛 투 킴 인 시네마’, 월드플레이 ‘뮤직 오버 더 스피어스’ 등 스크린X 기술을 적용한 CGV 특화 콘텐츠를 다수 기획해 글로벌로 유통하는 등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그 결과, CJ 4D플렉스의 2023년 매출액은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신임 경영리더에는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직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과를 낸 인재들을 발탁했다. 신임 경영리더의 평균 연령은 44.9세로, 1980년대생이 12명이다.

CJ 관계자는 “‘안정 속 쇄신’을 기조로 신상필책이 이뤄진 인사”라며 “그룹은 최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 아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연중 수시 인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SSG닷컴 ‘SSG머니’ 서비스 자체 간편결제 선배

SSG닷컴이 자체 간편결제 마니인 ‘SSG머니’의 충전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결제수단을 다변화하고 높은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SSG머니 충전결제는 SSG닷컴에서 상품주문 시 고객 계좌에서 SSG머니를 1만원 단위로 충전하고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다.

SSG닷컴의 간편결제 플랫폼인 SSG페이에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SSG닷컴에서 쇼핑할 때마다 SSG머니 충전과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SSG머니는 주문금액 기준 1만원 단위로 자동 충전된다.

SSG머니 충전결제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적립 혜택이다. 횡수 제한없이 결제금액의 1.5%를 SSG머니로 적립해준다. SSG닷컴에서 구매한 상품의 배송이 완료된 다음날 SSG머니 계좌에 건당 1만원 한도로 SSG머니가 적립된다. 충전결제를 통해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잔액은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 롯데마트, 반려동물 콘텐츠 집대성 ‘콜리올리 펫타운’ 오픈

신갈점에 1호점... 약 340평 규모 헬스케어·여가체험 공간 등 구성

롯데마트는 지난 14일 롯데마트 신갈점에 반려동물 토탈 케어 스토어 ‘콜리올리 펫타운’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콜리올리 펫타운’은 ‘내 집 앞 반려생활 중심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한곳에’란 콘셉트로 반려생활에 관련된 콘텐츠를 집대성한 공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74만 가구로 증가해 국내 전체 가구의 2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롯데마트는 지속 성장중인 반



롯데마트 신갈점 ‘콜리올리 펫타운’.

/롯데마트

려동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가치와 서비스를 전하고자 대형마트 최초로 반려동물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토탈 케어 스토어 ‘콜리올리 펫타운’을 선보였다.

‘콜리올리 펫타운’ 1호점이 들어선 롯데마트 신갈점은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 잠재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롯데마트는 신갈점 1층 전체 공간, 1124㎡(약 340평)를 ‘콜리올리 펫타운’에 할애했다. 대형마트 내 1층 전체 공간을

반려동물을 위한 콘텐츠로 채운 사례는 이전에 없었던 혁신적인 시도다.

‘콜리올리 펫타운’은 반려동물의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공간을 비롯해 식품 및 용품 전문숍, 여가 및 문화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해당 특화 공간은 바닥재부터 가구까지 반려동물의 관철에 부담을 줄이는 자재를 사용했으며, 후각이 예민한 반려동물을 위해 하루 두 번 소독을 진행한다.

반려동물의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공간에는 펫유치원&호텔 ‘바우라움’, 동물의료센터 ‘닥터펫’, 펫보험 ‘펫쭈쭈’를 선보인다. ‘바우라움’은 반려동물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반려견을 위한 호텔과 애견 교육시설을 갖춘 애견유치원을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웰푸드 글로벌 셰프 초청 베이킹 시연회에서 제레미 볼레스터 셰프가 시연을 보이고 있다.

/롯데웰푸드

## 롯데웰푸드-락탈리스 글로벌 셰프 초청 베이킹 시연회 진행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유제품 기업 락탈리스(LACTALIS)사와 함께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셰프를 초청해 락탈리스의 프리미엄 유제품을 활용한 베이킹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르 꼬르동 블루·숙명아카데미에서 열린 이번 ‘프레지딩 셰프 앰배서더 시즌 메뉴 시연회’는 좋은 재료와 최고의 레시피를 관계자들과 공유해 베이커리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진행됐다.

롯데웰푸드는 1960년 국내 최초로 마가린을 생산한 이래 다양한 베이킹 원료를 공급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락탈리스와 협력해 ‘플로리’, ‘프레지딩’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원료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프레지딩 셰프 앰배서더’인 제레미 볼레스터와 마뉴엘 부이예가 시연자로 나섰다. 프레지딩 셰프 앰배서더는 락탈리스가 선정한 브랜드 홍보대사로, 평소 프레지딩 브랜드를 사용해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정상급 셰프를 의미한다.

/신원선 기자

## 롯데리아 “점심메뉴 12% 할인 받으세요” hy ‘관절 토탈케어’ 누적판매 300만병

오전 11시~ 오후 2시 ‘리아 런치’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가성비·가심비 전략의 점심 프로모션 ‘리아 런치’ 운영을 통해 점심 고객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리아런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까지 롯데리아의 인기 세트 메뉴 6종을

기준 대비 약 12%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런치 프로모션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한 외식 비용 부담이 커져가는 환경에 부담 없이 즐기는 든든한 한끼 전략의 리아 런치는 지난 9월 전년 대비 판매량 약 16% 상승에 이어 10월 판매량 또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며 긍정적 고객 반응을 얻고 있다.

/신원선 기자

hy의 ‘케어온 관절 토탈케어(이하 관절 토탈케어)’가 누적 판매량 300만 병을 돌파했다. hy는 신제품의 인기요인으로 관절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편의성을 꼽았다.

관절 토탈 케어는 출시 이후 정기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10월 기준 약 5만여명의 고객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이용 중이다. 출시 당시

와 비교해 약 93%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구독 유지율 역시 90%를 상회하며 자사 타 제품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능성도 강점이다. 핵심 소재 ‘참나리추출분말’은 hy가 8년간의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개별인정형 원료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관절 건강에 미치는 유효성을 확인했다.

/신원선 기자